

6·4 지방선거 표밭 점검

새정치 후보 탈환이나, 무소속 연승이나

순천시장

민선 1~4기 지방선거까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가 승리했던 순천시...

이번 선거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허석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에 맞서 현직 시장인 무소속 조충훈 후보가 출마해 무소속 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전 포인트 및 쟁점·변수=새정치연합의 바람이나 아니면 무소속 후보의 연승이나가 최대 관심사다. 허 후보는 "당의 프리미엄은 20%포인트 이상이어야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순천의 최대 쟁점은 정원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문제다.

허석 후보는 "시민이 나무를 심을 경우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 '아이나무운동'으로 녹지를 더 조성, 100년 후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충훈 후보는 "순천만 정원과 '봉화산 둘레길'로 도시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원도시를 만들었다"며 "정원산업 지원센터, 가드닝 센터 건립으로 정원 문화를 선도하고 정원 관련 산업박람회를 유치하는 한편 미니 가든에

순천시장 후보

Table with 3 columns: 정당 이름, 정당인, 주요 공약. Candidates: 허석(49), 이수근(46), 조충훈(60).

조충훈·허석 서로 승리 장담 속 이수근후보 가세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쟁점... 소지역주의 변수도

스포를 개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수근 후보는 "순천만 정원이 조속히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도록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순천만 정원을 활용한 국제 생태비엔날레를 개최, 대한민국 자연·생태·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수로 소지역주의가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 후보는 "나는 해룡면 출신이고 조 시장은 주암 출신으로, 인구는 해룡면 쪽이 10배 많은데도 표심(票心)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 구도상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래서 나다"=조 후보가 내세운 최대 성과는 정원박람회 성공이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 후보는 순천시민 사이에 일고 있던 찬반 논란을 잠재우고 정

원 박람회에 올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흑자(164억원) 박람회를 이끄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또 코레일 조사에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위'와 전국 유일의 살기 좋은 도시대상 2회 수상 등 성과를 거뒀다.

조 후보는 "정원박람회는 절반의 성공이다.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순천은 이제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쉬고 문화와 예술이 활짝 꽃을 피우는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는 ▲임기 중 사회복지 예산 30% 증액 지원 ▲태양광·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생활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원도심 하수와 오수의 완벽한 분리 ▲순천 예술의전당 건립 ▲농한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공동주거(9988) 전 읍·면·동 확대 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도전하는 허석 후보는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다. 오랜 기간 노동·시민운

동에 몸담아 온 허 후보는 '순천의 박원순'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승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허 후보는 "시민의 공간은 염두에 두지 않는 전지 행정, 이벤트 행정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오직 순천시민만을 바라보며 순천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투명하고 공평무사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도록 하겠다"며 "눈 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비전을,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읍·면지역 경로당 운영비 전액 지원 ▲초·중·고등학교 기간노선버스 무료 이용 ▲농산물 적정수매가 유지기금 300억원 조성 ▲신도심 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이다.

이수근 후보는 "생명과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전지행정, 생태와 환경을 가장한 무분별한 개발,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순천시정, 만사소통으로 포장된 측근소통, 침몰하는 순천시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충격을 선사했다.

그는 또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나라, 경쟁보다 협동이 우선인 나라, 이윤보다 안전이 중요한 나라, 권력보다 국민이 우선인 나라, 서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공약은 ▲순천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대학생 이하,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순천시 게스트하우스 대표 브랜드 '사랑방 손님' 개설 ▲농업예산 1000억원 확보 ▲순천대 의대 유치 등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예정열·김은종기자 jyj@



순천만정원 밤에도 즐길 수 있다

6월1일~8월31일 야간 개장

순천만정원(사진)의 아름다움을 밤에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순천시는 20일 "불빛더위를 피해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순천시민 및 관광객 들편의에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게이트 대표시간도 당초 17시에서 1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된다.

시는 야간개장을 실시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학생 이하의 가족적 가족단위로 야간 입장허용을 실시할 방침이며 구간별 전기시설, 게이트 조명 등 주요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타일형 그늘막과 대형 파라솔, 안개분무시설, 쿨팬, 클린타임제 등 각종 편의시설보강과 야간경관조명, 첨가가든 페스티벌, 가요베스트 공연, 수상자전거, 물놀이 체험 등 새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개장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찾은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지 순천만정원 야간 개장과 함께 아름다운 불빛 아래 펼쳐지는 정원의 모습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예정열기자 jyj@kwangju.co.kr



쾌적해진 시립추모공원 이용객 만족도 높아

순천시립추모공원(사진)의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20일 "화장 및 봉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적극 대처기 위해 지난날 10일 개장한 순천시립 추모공원의 이용객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립 추모공원은 아용동 일원 4만 800㎡의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 등 연면적 4247㎡의 규모에 화장로 5기, 봉안함 6000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순천시립 추모공원 이용 비용은 순천시민의 경우 화장 5만8000원, 봉안(15년) 18만원, 유택동산 1만원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또 쾌적하고 깨끗한 건물에 이용객을 위한 고별실, 개별 분향실, 휴게실, 매장,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편리하게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안당은 기존 건물에 모셔져 있는 유골 2179기를 전문 업체를 통해 새건물로 정중하게 이전했으며, 신규 봉안당에는 부부 안치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개인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3선거구 서동욱 단독출마재선 눈앞...4명 도전 2선거구 주목

도의원

5개의 선거구가 있는 순천에는 선거구의 재배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11명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제1선거구(도사동·별랑·상사·낙안·외서·송광면·저전·장전·남제·풍덕동)에는 정영식 현 도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제4, 5대 순천시의회를 지낸 김기태 정 압대학교 총동창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노동당에서 강병택 노동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내세웠다.

순천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제2선거구(해룡면·왕조2동)에는 정병희 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이에 맞서 통합진보당 임석훈 순천시위원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또 무소속으로 양동호 전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장과 4선의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던졌다.

제3선거구(금곡·조곡동)에서는 서갑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서동욱 현 전남도의회이 단독 출마,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4선거구(왕조1동·서면)에는 새정치민

주연합 경선을 거쳐 한택희 전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이 공천을 받았다. 이에 맞서 순천교통 노동조합 부지부장인 강동주 김선동 국회의원 특별보좌관이 나섰다.

제5선거구(삼산동·송주읍·암면·황전면·월동면·향동·중앙동·매곡동)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허강수 전남도의회을 제천 박동수 도의원이 당 후보로 본선에 나섰고 순천시의회 의장 등 3선 시의원을 역임했던 이용제 전 도의원이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순천=예정열·김은종기자 jyj@

순천 도의원 후보

Table with 2 columns: 선거구, 이름 (나이·정당·경력). Lists candidates for 5 districts.

Advertisement fo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Grand Opening Special Discount Event) for '이지에우리' (Eziweuri) traditional clothing store. Includes text about traditional clothing and a map of the store location.

Advertisement for '나왔다!' (It's Here!) featuring '해감노가리호프' (Haegam Nogari Hof) beer. Includes images of beer bottles, a glass, and promotional text.